

## 다산 불교문자의 자기 검열

정민\*

### 목차

- I. 머리말
- II. 다산의 불교관련 佚文 자료 현황
- III. 검열의 층위와 내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丁若鏞(1762-1836)은 18년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이 기간 중에 수많은 불교 관련 시문을 남겼는데, 이 가운데 문집에 수록된 것은 4분의 1도 채 안 된다. 일종의 자기 검열이 행해진 셈인데, 이 글에서는 이 같은 자기 검열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자기 검열은 사회적 불이익과 제재, 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위장과 은폐 행동이다. 그 양상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을 배제하거나 침삭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침삭과 대체, 탈락의 세 가지 층위로 다산 불교 문자의 자기 검열 양상을 살펴보았다. 침삭은 말해놓고 감추기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대체는 숨기면서 드러내기의 양상을 보여준다. 탈락은 버려서 배제하는 태도다.

다산은 유배 온 죄인이었던 자신의 처지와, 자칫 당시 배제적 가치 영역에 속한 불교 친화적 글쓰기가 불러올 불이익을 의식하여, 자신이 쓴 불교 관련 글을 문집에서 빼거나, 신더라도 문제가 될 부분을 검열해서 수록했다. 이밖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경우도 많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불교 관련 글에 대한 자기 검열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이다.

자기 검열의 양상은 실제로 검열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함께 남아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 두 가지가 모두 남아 있는 예는 그다지 흔하지 않은데, 다산 자신이 불교와 관련해서 써준 글을 배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찰이나 승려들이 이를 보배롭게 보관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광범위한 자료 수집 작업을 통해 문집에 누락된 대단히 많은 분량의 불교 관련 시문을 발굴 정리함으로써 이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산은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E-mail : jung0739@hanmail.net

그때그때의 요청에 따라 글을 썼고, 이후 혹시 발생할 수 있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은폐와 우회의 검열 기제를 작동시켰다. 본 논문에서 경우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는 불교에 대한 해박한 식견과 비판적 인식을 가졌으나, 막상 처음 쓴 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일부 문집에 수록된 글에는 비판적 인식을 의식적으로 첨가했고, 때로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 다른 사람을 필자로 내세우곤 했다. 그밖에 수많은 글들이 본인의 판단으로 회작이라 여겨 자기 검열의 체에 걸려졌다.

다산은 그밖에도 문집에 누락된 많은 글이 따로 전해진다. 이들 글을 포함해서 자기 검열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정약용, 자기 검열, 불교, 첨삭, 대체, 탈락, 검열기제

## I. 머리말

이 글은 茶山 丁若鏞(1762-1836)이 남긴 여러 불교 관련 시문에 투영된 자기 검열과 반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산은 1801년부터 1818년 해배까지 18년간의 강진 유배 생활에서 인근 大菴寺와 萬德寺 승려들과 긴밀한 교분과 왕래가 있었다. 다산과 불교와의 인연은 개별적 교유에 그치지 않고, 『大菴寺志』와 『萬德寺志』의 편찬으로까지 이어졌다. 불교와 관련해 100편이 훨씬 넘는 시문과 수십통의 서간문을 남겼는데, 막상 문집에 수록된 것은 그 4분의 1도 채 못 된다. 그나마 문집에 수록된 글도 사찰 쪽으로 전해진 글과 대조해보면 원래의 상태가 아닌, 상당한 손질을 거쳐 첨삭된 것이 적지 않다. 일종의 검열 기제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검열은 피검열자와 검열자의 위계에 따라 작동 지점이 달라진다. 피검열자의 경우, 각종 사회적 불이익과 제재를 피하거나, 혹시 있을지 모를 비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진행되는 위장과 은폐 행

등으로 나타난다. 검열자는 반대로 체제 유지나 규범 준수를 위해 경고와 감시 기제를 작동시킨다. 그러니까 검열은 경고와 감시를 벗어나 자신의 발화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희석시키려는 피검열자의 위장 행동과, 금지선을 넘는 행위에 제동을 걸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검열자의 감시 행동을 낳는다.

문집 편찬 시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을 배제하거나 민감한 부분을 침삭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검열이다. 사후에 문집을 편찬할 경우 선대의 글을 두고 물의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문중 검열도 있다. 단순히 출판 비용 절감 문제로 작품을 선별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같은 자기 검열은 창작 주체의 대사회적 공인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밖에 淸朝의 文字獄이나 정조대의 문체반정 같은 국가 검열이 있다. 국가 검열은 이미 유통, 소비된 내용의 검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 검열이든 문중 검열이든 사회 또는 국가 검열을 전제하므로,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있다.

검열은 일종의 레드 라인이다.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못하게 강제하므로 검열은 소통을 차단한다. 검열기제의 자장 안에 놓인 텍스트는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확보코자 한다. 여기에는 말해놓고 감추기, 숨기면서 드러내기, 버려서 배제하기 등의 침삭, 대체, 탈락 등의 다양한 은폐와 우회적 전략이 작동한다. 그 목적은 혹시 있을지 모를 예상치 못한 불이익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대로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관철키 위한 고의적 은폐도 있다.

특별히 다산의 불교 문자는 당시 유배 죄인이었던 자신의 처지와, 배제적 가치 영역에 속한 당시 불교의 상황이 맞물려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다산은 애써 쓴 글을 문집에서 누락시키거나, 신더라도 당초의 글과 다르게 손질을 가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신 빌리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필요에 따라 얼마간의 단서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 II. 다산의 불교관련 佚文 자료 현황

다산은 실로 엄청난 분량의 불교관련 글을 지었지만, 문집에는 대부분 누락되었다. 이들 자료는 사찰 쪽의 기록과 각종 친필 서첩의 형태로 전한다. 다산의 불교 관련 일문이 다수 실린 1차 사료는 송광사 승려 錦溟 寶鼎(1861-1930)이 대둔사의 전적을 필사한 『栢悅錄』과, 梵海 覺岸(1820-1896)의 『東師列傳』, 그리고 다산이 편집을 주도한 『大菴寺志』와 『萬德寺志』 등이 있다. 이밖에 각종 贈言帖과 필첩이 따로 남아있다. 모두 다산이 심혈을 기울여 쓴 글들이다.

문집에 수록된 다산의 불교 관련 시문은 산문이 15편, 시가 53제 91수여서 이것만으로도 적지 않다. 다만 시의 경우 유배 이전의 작품이 많고, 기행과 유람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문집에서 누락된 불교 관련 시문은 문집에 남은 작품의 몇 배다. 자세한 내용은 앞선 논문에서 소개한 바 있어 여기에 미룬다.<sup>1)</sup> 이 글에서는 주요 누락 시문의 목록만 정리해서 다음 표로 제시하겠다.

수록 문헌	작품명	비고
『栢悅錄』	『大菴挽日菴記』, 『掣鯨堂偈并引』, 『鐵牛堂偈并引』, 『懸解塔銘』, 『隱峰堂祭文』, 『表忠祠祭文』, 『禪問答』, 『高聲庵募緣文』, 『挽兒菴』 2수, 『山居雜詠』 7언율시 12수, 『山居雜詠』 7언절시 12수	총 11편, 34수.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
『東師列傳』	『海運禪師碑銘』, 『香如大師塔銘』, 『華岳大師碑銘』, 『晶巖大師碑銘』, 『兒菴藏公碑銘』, 『與鐵船』	총 6편
『萬德寺志』	『題天頂詩卷』, 『游龍穴記』, 『萬德有兩無畏辨證說』, 『無染國師辨證說』, 『普照塔辨證說』, 『金生扁額辨證說』, 『萬德寺金生筆』 시, 『題萬景樓』 시	총 8편

1) 정민(2016), 152~231면에서 다산의 불교 관련 일문 자료 98편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백열록』의 11제 35수, 『동사열전』의 6편, 『만덕사지』의 8편과 『대둔사지』의 4편 등 모두 29편 53수의 다산 佚文을 새롭게 찾았다. 이밖에 승려에게 준 증언첩과 호계첩이 모두 17종 100척이나 되고 승려에게 준 서간문 52통을 정리 소개하였다.

『大菴寺志』	『題蓮潭詩卷』, 『大菴寺原初創建辨證說』, 『大菴諸寮置方丈室良法美制跋』, 『金字寶藏錄不足憑據論』	총 4편
草衣에게 준 증언첩	『示意洵帖』 9칙, 『草衣號偈帖』 3칙, 『聽之琴帖』 6칙, 『唐沙門酬李補闕詩帖』 17칙, 『朝起觀遠山帖』 11칙, 『爲草衣僧意洵贈言』 6칙(제 2칙 외 문집 수록), 『寒山子詩帖』 4칙, 『草意手鈔茶山書贈人帖』 6칙	총 8종, 62칙
기타 승려에게 준 증언첩	騎魚 慈弘에게 준 『茶山與慈弘贈言』 8칙, 기어 자홍에게 준 『騎魚堂偈』 1칙, 掣鯨 應彦에게 준 『題掣鯨帖』 5칙, 袖籠 曠性(1777-1806)에게 준 『袖籠堂偈』 1칙, 鐵船 惠楫에게 준 『雜言送鐵船還』 11칙, 鐵船 惠楫에게 준 贈送詩 9수, 縞衣 始悟(1778-1868)에게 준 『縞衣號偈』 1칙, 어느 사미승에게 준 『爲沙彌贈言』 1칙, 승려 美鑿에게 준 『敝帚喻送美鑿』 1칙	총 9종, 39칙
서간 자료	隱峰 斗菴에게 보낸 서간문 7통, 玩虎 尹佑(1758-1826)에게 보낸 서간문 4통, 아암 혜장에게 보낸 서간문 1통, 縞衣 始悟(1778-1868)에게 보낸 서간문 14통, 草衣 意洵에게 보낸 척독 8통, 袖籠 曠性(1777-?)에게 보낸 서간문 1통, 騎魚 慈弘에게 보낸 서간문 2통, 鐵牛 表雲에게 보낸 척독 1통, 大雲에게 보낸 척독 1통, 楓溪 賢正에게 보낸 척독 1통, 恩峰 謹愿에 대해 쓴 서간문 4통, 실명 승려에게 준 척독 8통	총 52편
기타 자료	『題挽日菴志』, 『挽日菴實蹟』, 『題草衣洵所藏石屋詩帖』, 『水鐘詩遊帖跋』, 『乞茗疏』, 『萬德寺高麗八國師祖上梁文』, 『見月帖』 중 『蓮坡小偈』 2구, 『懸解法師塔銘』	총 8편

문집에 누락된 글이 편수로만 106편에 달한다. 이들 자료는 실제 다산이 썼지만 문집에는 최종적으로 누락되었다. 고의로 빼 것과 일부 내용을 교체해 수록한 것,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발표한 것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불교 관련 시문에서 이토록 많은 분량이 빠진 것이 뜻밖인데, 그 까닭이 사뭇 궁금하다. 다산은 1805년 4월 아암 혜장과 처음 만난 이후, 만덕사와 대둔사 승려들과 벗 또는 사제의 인연을 맺어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승려들의 요청에 의해 『만일암지』와 『대둔사지』, 『만덕사지』의 편찬 책임을 맡았고, 여러 승려의 탐명과 비문, 號偈, 贈言 등의 글을 써주었으며, 수십 통의 서간을 따로 남겼다. 그런데 아암 혜장과 초의 의순에게 준 일부 시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집에서 누락시켰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 다산은 隱峰 斗菴에게 7통의 편지를 남겼다.<sup>2)</sup> 이중 직지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한 『隱峰集柬』에 수록된 3통 중 한 통인 『謝隱峰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記文과 菴志는 모두 친필로 써 보냅니다. 모름지기 아암과 함께 한 차례 펼쳐 보신 뒤에 마땅히 깊이 상자 안에 간직해두고 절대로 자주 보지 마십시오. 이번에 보내온 글을 보니 그 크기를 알려왔던데, 아마도 새기려고 그러는 것 같군요. 이는 더더욱 논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절대로 마음먹지 마십시오. 조용히 훑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급하게 먼저 현판을 내걸면 제가 곧장 몸소 가서 부숴 버릴 테니, 고집피우지 마십시오.<sup>3)</sup>

두운이 1809년 6월에 만일암의 중수를 마치고 나서 다산에게 기문과 『만일암지』를 친필로 써줄 것을 부탁했다. 위 편지는 다산이 1809년 7월 7일 아침에 부탁받은 『重修挽日菴記』와 『挽日菴實蹟』 및 『挽日菴題名』 등의 글씨를 써주며 보낸 답장의 일부이다. 요청에 응해 글을 써주었지만 공개적으로 그 글이 자신의 이름으로 내걸리는 것만큼은 한사코 거절한 내용이다. ‘靜俟後日’이란 말에 자기 검열의 이유가 담겨있다. 유배 죄인으로 귀양 와 있던 처지에 儒者의 본분을 망각하고 절집의 기록이나 정리해주고 있다는 구설을 꺼렸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초의의 비망록인 『艸衣手鈔』 중에 이런 메모가 남아 있다.

2) 다산이 은봉에게 남긴 편지는 정민(2008a), 11~27면을 참조할 것.

3) 정약용, 『謝隱峰書』: “記文及菴志, 皆以親筆書送, 須與兒菴一番披見後, 卽當深藏笥篋, 切勿顯示也. 今見來書, 其尺寸相報, 想欲付刻而然也. 此則尤非可論, 切勿生意. 靜俟後日可也. 若徑先揭板, 則旅人卽當躬往毀之, 無固執也.”

與猶께서 『大菴志』를 중수할 때, 여러 스님의 碑記를 자세히 보시고는 「諸師碑塔茶禮祭文」 한 축을 擬作하셨는데, 보시고는 그 즉시 불살라 버리셨다. 이때 雅士 尹午發이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미처 불타기 전에 한번 보고 몇 구절을 외워서 전하였다. 杏南 尹公이 내게 들러서 이를 외워 주기에 여기에 기록한다. 다만 月渚와 華岳, 喚醒 세 스님의 贊 뿐이다.<sup>4)</sup>

다산이 『대둔사지』를 편찬할 당시, 여러 선사들의 碑記를 살펴 본 뒤 내친 김에 「諸師碑塔茶禮祭文」 한축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그 즉시 불살라 버렸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일화는 다산이 이 시기에 여러 요청에 응하거나 때로는 자발적으로 불교 관련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검열의 행동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쓴 여러 편의 글이 다른 승려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산이 그토록 많은 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집에 남은 작품이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산은 유배 초기 10여 년 동안에는 해배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으므로 불필요한 구설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실제로 다산은 불교 외의 글에 대해서도 자칫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문집에서 배제하는 자기 검열을 종종 행했다. 안동 남인들 사이에 벌어진 屏虎是非에 대해 극렬한 논조로 비판한 이인행에게 준 글이 문집에는 제목만 남고 사라졌는데, 정작 해당 글이 李仁行의 『新野集』에는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다산의 친필도 남아 있다.<sup>5)</sup> 『關北制勝集』의 발문과 『事大考

4) 초의, 『초의수초』: “與猶先生重修大菴誌時, 詳見諸師碑記, 擬作諸師碑塔茶禮祭文一周, 看旋燒之. 時尹雅午發在侍側, 一看於其未燒前, 誦得數句傳之. 杏南尹公, 過余誦之錄此. 唯月渚華岳喚醒三老贊而已.” 이 책은 현재 무안 초의탄생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5) 『爲李翊衛仁行贈言』 2수가 『정본여유당전서』 3책에 목차만 실려 있고, 新朝本에는 이마저도 빠졌다. 원문을 빼고, “右二首, 一論南方之學, 全說理氣, 不于實行及經世之

例』의 서문 또한 자신이 써 놓고 제자인 鄭周應이나 司譯院正 李時升의 이름으로 공개한 바 있다.<sup>6)</sup> 이와 비슷한 예는 다 예거하기 힘들 정도다.

### Ⅲ. 검열의 층위와 내용

검열을 의식하지만 글은 쓰지 않을 수 없다. 자기 검열은 말을 하되 은폐하여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전략이다. 이 경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쳐다보면 핵심이 흐려진다. 검열의 차단벽을 넘기 위해 쓰는 이는 숨기기, 돌려말하기, 반대로 말하기, 말꼬리 흐리기, 이름 바꾸기, 삭제하기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여기에도 진행 방향으로 보아 자신을 위한 것, 검열자의 징벌과 제재를 염두에 둔 것, 독자를 향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다산의 불교 관련 문자 중 문집에 살아남은 자료와 삭제된 자료 중, 1) 문집에 실렸으나 일부 변개되거나 다양한 버전이 남은 경우, 2) 삭제되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여기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경우,

---

術, 眞切用工也. 一論屏山虎溪之戰, 終爲敗亡之兆, 亟宜撲滅也. 皆隨手走筆, 未有草本, 不能錄.”이란 부기만 달려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민(2009), 41~80면을 참조할 것.

6) 국립중앙도서관본 『미산총서』 제 5책에 수록된 『비어고』 권7 『關北制勝集』 끝에 적힌 발문은 다산의 제자 鄭周應이 쓴 글로 나온다. 이 글에는 중간에 도려낸 부분이 있는데, 허선도(1974)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내 외가의 서고 속에서 얻은 것(余外家書庫中所得也)”라 한 내용과, 끝의 “외가 윤씨는 해남 백련동에 있는데, 충헌공은 휘가 윤선도이고, 호는 고산이다. 가경 무인(1818) 1월에 미산에서 쓴다(外家尹氏, 在海南白蓮洞, 忠憲公諱尹善道號孤山. 嘉慶戊寅首春, 書于岬山.)”고 한 부분이다. 1818년 당시 고작 14세 소년에 불과했던 그가 이 글을 썼을 리 없고, 더욱이 외가가 해남의 윤씨인 것은 정주옹이 아닌 다산 자신이었다. 다산 자신이 곁동 다산초당에서 이 글을 써놓고, 후에 책으로 옮겨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정주옹의 이름을 대신 내세운 것이다. 관련 내용은 정민(2017d)을 참조할 것. 또한 『사대고례』도 전임 사역원장인 이시승이纂進한 모양새로 되어 있으나, 이시승의 이름으로 쓴 글은 다산 자신이 쓴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다산학단문헌집성』 제 8책에 수록된 임형택 교수의 해제에 자세하다.



3) 써 놓고 지운 경우 등 세 범주로 나누어 실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 1. 첨삭, 말해놓고 감추기

첨삭은 쓴 글을 문집에 수록할 때 당초에 없던 부분을 첨가하거나, 문체가 될 만한 부분을 삭제한 경우다. 문집에 실린 글과 원래 쓴 글이 모두 남아 둘 사이의 차이를 음미할 수 있는 경우여서 예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먼저 읽을 글은 『만덕사지』 상책, 고려 8국사 중 제4 眞靜國師 天頌조에 인용된 「題天頌詩卷」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此高麗名僧天頌，賜號眞靜國師者詩文遺集也。本四卷二帙，其半爲隣寺首座僧所竊，蓮潭有一嘗欲鉤取之，竟不得。余觀天頌之詩，濃麗蒼勁，無蔬筍淡泊之病。其學博洽該貫，而其才敏於用事。上之可以駢駕遺[→愍]山，下之可以拍肩蒙叟。惜乎，名已泯矣！若使操衡藝苑者，揀三人於羅麗之世，則崔致遠·天頌·李奎報其額也。【余觀東文選，錄天因詩文數篇，天因者，天頌之再傳也。】天頌本萬德山人，移棲龍穴。余自棲茶山以來，歲一游龍穴，爲嗅天頌遺芳也[→憶念天頌，未嘗不嗟傷悼惜。以若賢豪，胡乃陷溺於佛教也?].

다산은 천책국사를 대단히 높게 평가해서 초의에게 주는 증언에서도 그의 글을 여러 차례 인용했다. 그를 최치원 이규보와 같은 급에 둔 것만 보더라도 존숭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다산은 『만덕사지』 편찬 과정에서 천책의 『湖山錄』을 구해 읽었고, 그의 문장에 깊이 매료되었다.

같은 글이 『다산시문집』 권 14에는 「題天頌國師詩卷」으로 제목이 조금 달라졌다. 내용도 둘 사이에 얼마간 차이가 있다. 뒷부분에 “내가 『동문선』을 살펴보니 天因의 시 여러 편이 실려 있었는데, 천인은 천책의 再傳이다. (余觀東文選，錄天因詩文數篇，天因者，天頌之再傳也.)”라 한 부분이 『대둔사지』에서는 삭제되었다. 해당 대목의 기술이 명백한 오류였기 때문이다.

천책과 천인은 모두 제1 원모국사 요세의 直傳 제자로 동문일 뿐 재진 제자가 아니다. 다산은 이 글을 전후 사실 파악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썼던 듯하다. 『만덕사지』에서 이 문장을 삭제한 것이 당연한데, 정작 문집에서 이 부분을 남겨 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중간에 ‘懃山’도 『만덕사지』에는 ‘遺山’으로 나온다.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sup>7)</sup>

또 『다산시문집』은 끝에 군더더기 말을 덧붙였다. 『만덕사지』는 “천책은 본래 만덕산 사람인데 용혈로 옮겨 살았다. 내가 다산에서 지내게 되면서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용혈로 놀러갔는데, 천책이 남긴 향기를 맡아보기 위해서였다.(天頭本萬德山人, 移棲龍穴. 余自棲茶山以來, 歲一游龍穴, 爲嗅天頭遺芳也.)”로 끝난다. 『다산시문집』에는 “천책은 본래 만덕산 사람인데 용혈로 옮겨 살았다. 내가 다산에서 지내게 되면서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용혈로 놀러가서 천책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슬퍼하여 애석해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처럼 훌륭한 인물이 어찌하여 불교에 빠졌더라 말인가?(天頭本萬德山人, 移棲龍穴. 余自棲茶山以來, 歲一游龍穴, 憶念天頭, 未嘗不嗟傷悼惜. 以若賢豪, 胡乃陷溺於佛教也?)”로 고쳤다. 『만덕사지』의 글이 원래 것이고, 『다산시문집』의 것은 문집에 옮겨 실으면서 자기 검열을 거쳐 덧붙인 것이다. 불교 승려에 대한 과도한 칭찬을 의식해서 글 끝을 살짝 늘렸다. 전형적인 자기 검열의 첨가 양상이다.

다산은 『다산시문집』 권14에 『跋晶菴尺牘』이란 글을 따로 남겼다. 대둔사 승려 晶巖 卽圓(1738-1794)의 척독집에 대해 쓴 짧은 글이다. 원문은 이렇다.

7) 『만덕사지』에서 이미 교정된 내용이 그보다 후대에 나온 문집본에서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실린 것은 교정 작업이 사찰 측에 의해 진행되었고, 다산은 원래 썼던 자신의 글을 그대로 실되 끝의 한 구절만 더 추가했던 것으로 본다.

右晶巖尺牘一，沙門宗印之有也。余不見晶巖，然凡從晶巖游者，即經僧學子母論，雖販履鬻麪之等，莫不懷惠感德，有爲之垂涕者。以故知其有德。惜乎！其溺於浮屠也！

원문 끝의 “애석하다. 불교에 빠지다니(惜乎! 其溺於浮屠也!)”와 같은 대목 역시 실제로 써준 글에는 마땅히 빠졌을 내용이다. 문집에 실으면서 혐의를 피해 추가했을 것이다.

다음은 문집에 수록된 『아암장공탑명』이다. 이 글은 『만덕사지』와 『대둔사지』, 『동사열전』에 모두 실려 있고, 지면마다 출입이 상당하다. 『다산시문집』 권17에 실린 『아암장공탑명』 전문과 『만덕사지』 등의 차이나는 부분을 교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兒菴本金氏，法名惠藏，字曰無盡，號曰蓮坡，塞琴縣之花山坊人。[塞琴古百濟南徼。] 生地微，家且貧，幼而出家，落髮於大菴寺。[受月松再觀恩，] 從春溪天默學，天默淹貫外典，而兒菴警慧出群，學之數年，名噪緇林。顧短小樸默，不類閹梨。鄉中薦紳先生，皆[號之曰八得，蓋]愛其才而狎之。既長，廣受佛書，歷事蓮潭有一，雲潭鼎駟。年二十七，拈香於晶巖即圓，即逍遙之宗，華嶽文信之嫡傳也。兒菴從諸師受經，雖低首聽說，及出戶覺口中有聲曰呬，呬也者，哂之也。惟蓮潭手筭口授，不呬也。年甫三十，主盟於頭輪大會，會者百[有]餘人。嘉慶辛酉冬，余謫康津，越五年[乙丑]春，兒菴來栖于白蓮社，渴欲見余。一日余從野老，匿跡往見之，與語半日，不知爲誰。既告別，轉至北菴，日將夕，兒菴蹒蹒然迫至，叩首合掌而言曰：“公何欺人至此？公非丁大夫先生乎？道日夜慕公，公何忍如是？”於是攜手至其房宿焉。夜既靜，余曰：“聞君雅善周易，能無疑乎？”兒菴曰：“程氏之傳，邵氏之說，朱子之本義啓蒙，皆無疑。惟經文不可知耳。”余抽啓蒙數十章，問其旨趣，兒菴於啓蒙一部，神融口慣，一誦數十百言，如流丸轉坂，鸕夷吐水，滔滔乎不可窮。余大驚，知其果宿儒也。既而召其徒，取灰盤來，畫灰爲洛書九宮，剖析原委，傍若無人，攘其腕執筭，自左肩畫至

右足曰十五，自右肩畫至左足曰十五，既又畫之爲三橫三直曰無往而非十五。是日衆比丘立戶外，觀兒菴畫灰談龜文之數者，無不灑然動其髮毛者。夜既分，竝枕而臥，西牕月色如畫。余提之曰：“藏公睡乎？”曰：“未也。”余曰：“乾初九，何謂也？”兒菴曰：“九者，陽數之極。”余曰：“陰數焉極？”曰：“極於十。”余曰：“然，何不曰坤初十？”兒菴沈思良久，蹶然起，整衣而訴之曰：“山僧二十年學易，皆虛泡。敢問坤初六何謂也？”余曰：“弗知也。歸奇之法，凡最後之揲，或四或二，咸以爲奇，二四非偶乎？”兒菴悽然太息曰：“井蛙醜雞，眞不足以自智。”請益，余莫之應。是年冬，余棲寶恩山房，兒菴數相過談易。越四年春，余結廬于茶山，與大菴近而遠於城邑，其來彌數。微言妙義，得弘敷焉。兒菴性倔強，余曰：“子能致柔如嬰兒乎？”於是自號曰兒菴。兒菴於外典，酷好論語。究索旨趣，期無遺蘊。若莽閏之數，律呂之度，及性理諸書，皆精核研磨，非俗儒可及。性不喜詩，所作絕少，又不能副急。有贈必追和之，乃驚人。尤工駢儷，於佛書唯好首楞嚴起信論，而不喜呪禱[=>而竈經廁呪，未或被辱]，髡者病之。有二徒[=>弟子得法者四]，曰袖籠隲性，騎魚慈弘，[掣鯨應彥，枕蛟法訓]。既授衣鉢，兒菴乃老，時年三十五。耽詩縱酒，逍遙偃仰者，四五年。辛未秋得疾，以九月幾望，示寂于北菴，其臘僅四十。是年春，兒菴以長春洞雜詩二十篇示余，其二聯曰：“柏樹工夫誰得力，蓮花世界但聞名。狂歌每向愁中發，清淚多因醉後零。”知者悲之。厥明年冬，二[=>其]徒以其狀至曰：“吾師不可以不塔，先生不可以不銘。”余曰：“然。”銘曰：

燁燁優鉢，朝華夕蔦。翩翩金翅，載止載騫。  
哀茲都潔，有書無傳。與爾偕征，手啓玄鍵。  
靜夜收釣，明月滿船。殘春緘口，山林寂然。  
是名壽童，天嗇其年。墨名儒行，君子攸憐。

원문 중 굵은 획으로 처리한 부분이 『만덕사지』와 『동사열전』에 빠지고 없다. 원래 있던 것을 편집한 것인가? 아니면 다산이 문집에 실으면서 뒤에 추가로 써 넣었을까? 전자로 보인다. [ ]로 표시한 부분은 「만덕사지」

에는 있고, 『다산시문집』에는 없는 내용이다. [→] 부분은 대체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다산은 아암의 제자로 수룡 색성과 기어 자홍 두 사람만을 꼽았는데 반해, 『만덕사지』에서는 철경 응언과 침교 법훈 두 사람을 더 보탤었다. 『동사열전』에서는 기어 자홍을 뺀 세 사람만 꼽았다.

불교 쪽 1차 자료에서 삭제된 부분은 아암과 다산의 첫 만남 장면이다. 아암 혜장은 말년에 술에 빠져 살았고, 승복마저 벗어던져 겨울도 내던진 채 파계승처럼 지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떴다. 다산은 혜장이 이렇게 된 것에 일말의 연민과 책임을 느꼈던 듯하다.

한편 아암 혜장의 문집인 『兒菴遺集』에는 『東方第十五祖蓮坡大師碑銘』이 실려 있다. 이 글은 위 『아암장공탑명』에 앞뒤 내용을 상당부분 더 추가한 글이다. ‘紫霞山人俟庵丁鏞撰’이라고 찬자를 명시했다. 현재 대홍사 부도밭에 새겨진 비문과 일치한다.

老子曰：“專氣致柔，能如嬰兒乎。柔者生之徒也。”或以是告之于頭輪惠藏和尚者，曰：“子之性偏強，能致柔如嬰兒乎？”於是和尚自號曰兒庵。兒庵本金氏，小字八得，惠藏其法名。字曰無盡，本號曰蓮坡，塞琴縣之花山坊人。塞琴古百濟南徼。生地微，家且貧，幼而出家，落髮於大菴寺，受月松再觀恩，從春溪天默學。天默能淹貫外典，而兒菴警慧出群，學之數年，名噪緇林。顧短小樸猷，不類閨梨。鄉中薦紳先生，皆呼之曰八得，蓋愛其才而狎之也。既長廣受佛書，歷事蓮潭有一，雲潭鼎駟，晶巖卽圓。年二十七，拈香於晶巖之室，卽逍遙之宗，華岳文信之嫡傳也。兒庵從諸師受經，雖低首聽說，及出戶，覺口中有聲曰：“呬呬呬。”呬也者，哂之也。唯蓮潭手筭口授，則不呬呬也。年甫三十，主盟於頭輪大會，會者千有餘人。嘉慶辛酉冬，余謫康津。越五年乙丑春，兒庵來棲于白蓮社，渴欲相見，顧余謝客，莫之見。一日余從野老匿跡，往見之。與語半日，不知爲誰。既告別，轉至北菴，日將夕，兒菴蹣跚然追至，而言曰：“公何欺人至此？公非與猶堂先生乎？貧道日夜慕公，公何忍如是？”於是携手至其房宿焉。夜既靜，余曰：“聞君雅善周易，能無疑乎？”兒菴曰：“程氏之傳，邵氏之說，朱子之

本義啓蒙，皆無可疑。惟經文不可知耳。”於是余抽啓蒙數十章，問其旨趣，兒菴於啓蒙一部，神融口慣，一誦數千百言，如流丸轉坂，鴟夷吐水，滔滔乎不可窮。余始大驚，知其果宿儒也。既而召其徒，取灰盤來，畫灰爲洛書九宮，剖析原委，旁若無人。攘其腕執筯，自左肩畫至右足，曰十五。自右肩畫，至左足，曰十五。既又畫之，爲三橫三直，曰無往而非十五。是日衆比丘，戶外觀兒菴畫灰談龜文之數者，無不灑然，動其髮毛者。夜既分，竝枕而臥，西窗月色如畫。余提之曰：“藏公睡乎？”曰：“未也。”余曰：“乾初九，何謂也？”兒菴曰：“九者陽數之極也。”余曰：“陰數焉極？”曰：“極於十。”余曰：“然何不曰坤初十？”兒菴沈思良久，蹶然起整衣曰：“山僧二十年學易，皆虛泡。敢問坤初六，何謂也？”余曰：“不知也。歸奇之法，凡最後之祿，或四或二，咸以爲奇。二四非偶乎？”兒菴潸然出涕曰：“井蛙醯鷄，真不足以自智。”請益，余莫之應。是年冬，余棲寶恩山房，兒菴數相過談易。越四年春，余結廬于茶山，與大菴近，而遠於城邑。其來彌數，微言妙義，得弘敷焉。兒菴於酷好論語，究索旨趣，期無遺蘊。若莽閭之數，律呂之度，及性理諸書，皆精核研磨，非俗儒可及。性不喜詩，所作絕少，又不能副。急有贈，必追和之，乃驚人。尤工駢儷，律格精嚴。於佛書，惟信首楞嚴起信論，而竈經則呪，未或被辱，髡者病之。弟子得法者五，曰袖龍曠性，騎魚慈宏，掣鯨應彥，枕蛟法訓，逸虯擾雲。既受衣鉢，兒菴乃老，時年三十五。耽詩縱酒，逍遙偃仰者四五年。辛未秋得疾，以九月幾望，示寂于北菴，其臘僅四十。其年春，兒菴以長春洞雜詩二十篇，示余，其二聯曰：“柏樹工夫誰得力，蓮花世界但聞名。狂歌每向愁中發，清淚多因醉後零。”知者悲之。示寂之日，頭輪雷鳴。於是以柏樹之句，名聞中國。閣老翁覃溪先生，深喜得人，以其詩集六冊，手書石板，金剛經一卷，已像一軸，因東使寄送，是亦一未曾有也。厥明年冬，其徒以其狀至曰：“吾師不可以不塔。先生不可以不銘。”余曰：“然。”銘曰：

燁燁優鉢，朝華夕薦。翩翩金翅，載止載翫。  
哀茲都潔，有書無傳。與爾偕征，手啓玄鍵。  
靜夜收釣，明月滿船。殘春緘口，山林寂然。  
是名壽童，天嗇其年。墨名儒行，君子攸憐。

이 비문은 위에서 제시한 교합본과 상당히 차이 난다. 우선 ‘老子曰’로 시작되는 서두의 첫 단락이 추가되었고, 중간 부분에 있던 호를 아암으로 바꾸게 된 내력 설명을 앞쪽으로 옮겨왔다. 다산이 아암에게 『주역』으로 질문했을 때, 앞서는 ‘悽然太息’이던 것이 여기서는 ‘漣然出涕’로 강화되어 있고, 마지막의 옹방강 관련 단락도 새롭게 추가되었다.<sup>8)</sup> 제자의 수도 5명으로 늘어났다. 그밖에 세부적으로 미세한 표현상 차이가 더 보인다.

요컨대 『아암장공탑명』은 문집본과 『대둔사지』, 『동사열전』, 『아암유집』 등 네 가지가 모두 서로 다른 경우다. 『아암유집』의 글이 가장 원본에 가까울 듯하나 제자의 숫자만큼은 비석을 세울 당시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문집에서는 『노자』와 관련된 언급을 삭제했고, 『대둔사지』와 『동사열전』에서는 아암이 다산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누락시켰다. 이 글은 쌍방 검열이 이루어진 드문 예에 속한다.

이밖에도 침삭 방식의 자기 검열은 폭넓게 이루어졌을 듯하나, 양측의 기록이 온전히 남은 경우가 더 없으므로 여기서 그친다.

## 2. 대체, 숨기면서 드러내기

대체는 자신이 써놓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거는 경우다. 다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문제의 사전 차단을 위한 것이고, 둘째, 근사한 구도를 위해서다.

「挽日菴實蹟」의 경우를 보자.

挽日菴在海南縣頭輪山之加年峰下。於大菴諸菴中，地勢取高。且據古記，其

8) 이 옹방강 관련 기사는 1813년 겨울의 일이다. 이 대목은 1812년 겨울에 탑명 작성 당시에는 없던 내용을 1813년 이후 실제로 탑을 세울 당시에 다산이 다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期建窠先。名雖屬寮，實大菴寺之肇基也。

古記曰：“宋文帝元嘉三年丙寅之歲，百濟久爾辛王即位之七年，百濟僧淨觀尊者，創建是菴，名之曰挽日。”

斗云按，佛法東流，始自苻秦，傳于句麗，次及新羅。而百濟剃染差晚，始於枕流王元年[晉孝武太元九年]，西域僧摩羅難陀，自東晉越海，至百濟，遂剃十僧，肇建佛教。則挽日菴之作，在十僧剃髮之後，不過四十三年。南土蘭若之中，取古窠先者也。

其後八十三年，即梁武帝天監七年戊子歲也。百濟武寧王八年。有善行頭陀，重建之。

斗云案：菴有七層石塔，立于庭心。古記云：“阿育王之所建。”然百濟無阿育王，當是阿莘之誤也。阿莘王又在久爾辛王之前，或者先建浮圖，次造伽藍歟，不可知也。

其後菴之廢興，無文可徵。至康熙十四年乙卯-我肅宗大王之元年，融信禪師又重建之。

斗云按，自天監戊子，至康熙乙卯，其間一千一百九十八年也。風雨漂搖，修繕必數。然樑中古記，略而不書，不可攷也。

後二十八年，[康熙四十二年癸未]，玄己和尚，又重修之，寔我肅宗大王二十九年也。

後五十年-乾隆十八年癸酉，應明八寶二沙門，又重修之，即我英宗大王三十年也。

斗云案：采薇大士記文曰：“衆推長老八寶，以監其役。”

後五十六年，[嘉慶十四年己巳]，不佞斗云，與慈菴典平，又重修之，即當寧九年也。

時堂宇頹敗，無以庇衆，蓋嵐霧之所濡朽楹桷，悉無可用。伐木於前歲之冬，起功於首春，上樑於四月，竣事於季夏。大菴寺出新剃錢三萬，其餘檀施零瑣不具錄。監事者沙門濟益[即都監]，沙門濟醒-即書記，皆曾經住持者也。煙波大師惠藏撰上樑文，弃于樑上。

嘉慶十四年己巳季夏，沙門斗云識。



다산의 친필로 전하는 이 자료는 역시 다산 친필의 『題挽日菴志』 및 『挽日菴題名』과 함께, 김영호 선생이 펴낸 『여유당전서보유』 제 2책, 448~468면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1809년 대둔사 승려 은봉 두운이 대둔사의 始原암자인 만일암을 중수한 후, 이 글을 지은 것으로 나온다. 다산은 4년 뒤인 1813년 가을에 다시 은봉의 요청에 응해 『題挽日菴記』를 따로 지어 주었다. 이 글에서 다산은 “예전 기사년(1809) 여름에 은봉 두운이 『만일암지』를 안고 와서 내게 여러 첩을 써줄 것을 청하였다. 내가 그러마고 이를 써주었다(往在己巳夏, 隱峰斗芸, 抱挽日菴志, 乞余書諸帖, 余信而書之.)”고 적은 것을 보면, 은봉이 1809년 여름에 자신이 지은 『만일암기』, 즉 『만일암실적』을 가져와 다산의 글씨로 받아갔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의 『제만일암기』에 따르면 『만일암실적』은 은봉 두운이 지은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 은봉은 매 단락마다 자신의 이름으로 안설을 남겼고, 끝에 ‘沙門斗云識’라고 해서 자신이 쓴 글임을 분명히 했다. 두 글을 통해 보면 『만일암실적』은 은봉이 짓고, 다산은 글씨만 써준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남은 『만일암실적』의 끝에 역시 다산 친필로 한 단락의 追記가 더 들어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阿育王은 인도의 탑을 세운 임금인데, 옛 기록에서 이를 잘못 썼다. 내가 불서에 밝지 못해 예전에 은봉을 위해 옛 일을 살피면서, 그를 백제 阿莘王의 와전으로 의심했으니 부끄러워할만 하다. 가경 17년(1812) 추분 이튿날, 내가 만일암에 들렀다.<sup>9)</sup>

이 대목은 위 『만일암실적』에 적힌 은봉의 이름으로 된 안설 중에 “암자에 는 7층 석탑이 마당 가운데 세워져 있다. 옛 기록에는 아육왕이 세운 것이라

9) 정약용 친필: “阿育王者, 西土建塔之君, 古記誤用之也. 余不嫻佛書, 舊爲隱峰考古, 疑其爲百濟阿莘之譌, 可愧也. 嘉慶十七年秋分翼日, 余過挽日菴.”

한다. 하지만 백제에는 아육왕이 없으니 마땅히 阿莘王의 오류일 것이다. 아신왕은 또 久爾辛王 보다 앞이다. 혹자는 먼저 부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람을 세웠다고 하는데 알 수 없다.(菴有七層石塔, 立于庭心. 古記云: “阿育王之所建.” 然百濟無阿育王, 當是阿莘之誤也. 阿莘王又在久爾辛王之前, 或者先建浮圖, 次造伽藍歟, 不可知也.)”고 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

아육왕은 인도 아쇼카 왕을 가리킨다. 『만일암실적』에서 만일암의 역사를 정리하다가 맞닥뜨린 아육왕이 인도의 왕 이름인줄 미처 알지 못한 채, 백제에 그와 비슷한 이름을 지닌 왕으로는 아신왕 밖에 없으니, 아육왕은 아신왕의 오기일 것이라고 추정했었다. 이 부분은 물론 은봉 두운의 글로 정리된 부분이다. 그런데 이후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육왕이 인도 아쇼카 왕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산은 앞서 『만일암실적』에서 추정한 안설의 내용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3년 뒤인 1812년 가을에 만일암에 들렀을 때, 자신이 써준 『만일암실적』을 다시 나오게 해서, 그 끝에 이같은 추기를 달아, 앞서의 잘못을 바로 잡았던 것이다.

글은 은봉이 썼는데, 어째서 다산이 부끄러웠던 걸까? 수정을 해도 은봉의 이름으로 했어야 마땅하건만, 다산은 급한 마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수정 내용을 적어 추기했다. 『만일암실적』 자체가 실제로는 은봉이 아닌 다산 자신의 글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다산은 『만일암실적』과 『만일암제명』을 은봉의 이름으로 대신 지어주었고, 1813년에는 「제만일암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지어 주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이와 별도로 『다산시문집』 제13권에 「重修挽日菴記」를, 제 22권에는 변려문으로 된 「挽日菴重修上梁文」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다산은 만일암과 관련해 무려 5편의 글을 써준 것인데, 이 가운데 3편은 자신이 짓고도 문집에서 빼거나, 은봉 두운의 이름을 빌려서 발표케 했다. 1809년 당시만 해도 해배의 희망을 가졌고, 1813년에 「제만일암기」를 쓸

무렵이 되어서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썼다. 문집의 『중수만일암기』가 『백열록』에는 『大菴挽日菴記』로 제목이 바뀌어 수록되었다. 몇 글자의 출입이 있지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만일암지』의 정리와 관련 글의 제작 이후, 다산은 사측의 지속적 요청에 따라 『대둔사지』와 『만덕사지』의 편집도 직접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대둔사지』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빼는 대신, 이미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뜬 아암 혜장의 이름을 넣었다.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이유 외에, 이 작업이 아암 혜장의 대둔사 내 확고한 위상 제고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둔사지』는 『竹迷記』로 대표되는 사찰에 전승된 고기록에 보이는 절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신 12종사와 12강사를 구성한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12로 대표되는 숫자 구성은 체재의 일관성과 모양새를 중시한 다산의 작품이다.

다산은 『대둔사지』를 엮으면서 옛 전승 속 대둔사의 역사를 전면 부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절 내부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속의 불교 관련 기사를 총 망라해 『大東禪教考』를 엮어 초기 삼국 불교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해야만 했다. 이 부분은 『대둔사지』 권 4에 배치되었다. 여기에도 역시 대둔사의 소요파와 편양파를 대표하는 완호 윤우와 아암 혜장을 나란히 내세웠다. 아암 혜장의 이름 밑에 ‘留授’라 쓴 것은 그가 『대둔사지』의 편찬이 시작된 1813년 보다 2년 앞선 1811년에 이미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작업이 기획되기도 전에 세상을 뜬 그를 책임 편집자의 자리에 세웠다. 그런데 마지막 끝 면에 다음과 같은 발문이 달려 있다.

위 『대동선교고』는 자하산방에서 편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옛날 삼국이 순발처럼 서있을 때 불교가 전래된 것이 들쭉날쭉해서 일정하지 않았다. 전래

가 가장 늦었음에도 제일 성대하게 불붙었던 것은 신라이다. 삼국을 통일한 뒤에 고구려와 백제의 빈터가 널려 있어 말학이 괴문하고 부족해서 그 실지를 고찰하지 못한 채 어두운 상태로 주장을 펼친 것이 많다. 이 책은 禪家の 禹鼎이라고나 할까? 紺泉 尹峒은 발문을 쓴다.<sup>10)</sup>

발문을 쓴 사람은 승려가 아닌 다산의 초당 제자 운동, 즉 尹鍾心(1793-?)이다. 이 글은 추정컨대 1815년 쯤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하산방은 다산초당의 다른 이름이다. 발문은 운동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글은 어떻게 보더라도 다산 자신이 쓰고 이름만 운동으로 내세운 글이다. 실제 작업의 주체였으면서도 첫 면에 자신의 이름조차 빼버렸던 터에, 글 끝에 자신의 이름을 돌연히 내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신 운동의 입을 빌어 이 책 전체가 자하산방에서 책임 편집 한 것임을 선명하게 밝혀놓았다.

『대둔사지』의 후속 작업으로 편찬된 『만덕사지』에서는 다산이 태도를 바꿔 鑑定의 주체로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었다. 앞서 『대둔사지』가 12종사와 12강사를 표면에 내세웠다면, 『만덕사지』에서는 고려 8국사와 조선 8대사를 선정해 ‘8’이란 숫자를 眼字로 삼아 집필의 골격을 세웠다. 이 8의 구도를 구성하고 완성한 사람은 바로 다산 자신이었다. 고려 8국사는 애초에 실체가 없던 것을 『동문선』을 비롯한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이었고, 조선 8국사의 계보는 아암 혜장에서 위로 逍遙 太能까지 닿는 8대를 꼽아서 만덕사의 宗統을 여기로 돌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억지스럽고 무리스런 배치임이 바로 드러난다. 실제로 만덕사의 고려 8국사 중 최소 3사람은 국사로 볼 수가 없거나 인물 추정이 원천적으로 잘못 되었다. 또 고려 8국사의 숫자에 맞춰 설

10) 『대둔사지』: “右大東禪教考, 紫霞山房所編摩也. 在昔三邦鼎峙, 而竺教傳染, 參差不齊, 其染之最晚, 而熾之最盛者, 鷄林是已. 及其混一之後, 麗濟遺墟, 乃普乃徧, 末學寡陋, 不考其實. 冒昧爲說者多. 是編也其禪家之禹鼎與. 紺泉尹峒跋.”

정한 조선 8대사는 아암 혜장 본인과 만덕사 출신의 승려 1인을 빼고는 대부분 만덕사에 한번 와 본 적도 없는 승려들이었다. 아암은 40세의 한창 나이에 술에 빠져 승려의 품행을 잃고, 불문에 든 것을 후회하는 듯한 언행으로 마지막을 보내 사후에 큰 구설을 야기했다. 다산은 이같은 아암 혜장의 마지막에 대해 상당한 부담과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던 듯하다. 이에 따라 대둔사에서 거의 파문 상태에 놓여 있던 아암 혜장을 『대둔사지』의 편집 책임자로 앉히는 동시에, 12강사와 8종사의 끝자리에 자리 매김함으로써 그의 위상을 확실하게 복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암의 위상을 부정하면 두 책은 존립의 근거를 잃고 만다.

한편 『만덕사지』 편찬 당시 8대사 중 비문이 없는 경우 다산 자신이 직접 급하게 비문을 지어 넣은 정황이 포착된다. 하지만 8인 중 5인의 비문을 자신이 직접 지었다고 하면 저작의 권위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해, 아암 혜장을 제외한 나머지 네 사람의 비문은 자신과 가까웠던 韓致應과 洪基燮(1776-1831)의 이름을 빌려 각각 두 편씩 안배했다. 이들 글은 자신의 문집에도 빠졌고, 해당 본인의 문집에도 없다. 그리고 비석이 실제로 세워지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구색을 갖추기 위한 기록용이었던 셈이다.

지면의 제약으로 네 비문 중 두 가지만 살펴보겠다. 먼저 『동사열전』 권 2에 수록된 海運 敬悅(1580-1646)의 비문이다. 그는 소요 태능의 문하로 『만덕사지』 하책에 만덕사 8대사의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승려다. 『만덕사지』에는 승정원 우승지 洪基燮이 쓴 글로 소개되었다. 그런데 『동사열전』에 홍기섭의 비문과 같은 글을 수록한 후 다산의 글로 소개했다. 『동사열전』에 수록된 「海運禪師傳」의 전문은 이러하다.

茶山翁曰：海運禪師之沒，今已百六十九年矣。其姓氏鄉里，皆無可考。惟蓮坡惠藏，嘗見師門古記，曰：‘青蓮圓徹大師，大菴大會之時，逍遙太能亦至菴

寺。海運敬悅，以是年受衣鉢於太能，時年二十八，至六十七而寂。’今考青蓮大會之年，乃萬曆三十六年丁未之冬也。然則敬悅而萬曆八年庚辰生，崇禎甲申之越三年丙戌寂。其受衣也，逍遙之年四十六，其歸寂也，逍遙之年八十五。逍遙八十八而終，則敬悅其先逝矣。其師弟二人，相與之際，猶如見賢。其小事雖逸，奚傷焉？逍遙門徒，數百餘人，惟敬悅獨得其宗。故號之曰海運，海運者，鵬徙也。鵬徙者，逍遙也。逍遙之傳，非卽海運乎？故其傳心傳法之偈曰：‘飛星爆竹機鷄峻，裂石崩崖氣象高。對人殺活如王劍，凜凜威風滿五湖。’又曰：‘金鷄影裡裂虛空，驚得泥牛過海東。珊瑚明月冷相照，古今乾坤一笑中。’拈花微笑，顧不在是乎？敬悅有詩，逍遙必和之。其詩曰：‘胸中法海幽難測，篇內玄樞遠莫酬。’又曰：‘禪綱教骨誰能敵，華月夷風孰敢酬。’又曰：‘水泡大地遺塵起，春夢空身妄識興。’又曰：‘威音那畔更那畔，滿目烟光入水皆。生死涅槃迷夢隔，劣形殊相病眸來。’其全篇，皆載逍遙集中，斯可以徵海運也。海運有法嗣，曰醉如三愚，三愚之嗣華岳文信，信之嗣曰雪峰懷淨，淨之嗣曰松坡覺暄，暄之嗣曰晶巖卽圓，圓之嗣曰蓮坡惠藏，噫，宗在是矣！銘曰：

大翼南徙，水擊三千。匪運曷遊，是受是傳。  
 星飛竹爆，光燭長天。六燃其燈，遂至晶蓮。  
 苟求真諦，視彼梓鐫。  
 門人十七人，醉如居首。丁公追記而論之。

서두의 ‘茶山翁曰’은 홍기섭의 이름으로 된 글에는 없다. 범해 각안은 해운대사의 비문을 옮겨 적어 오면서 앞에 이 네 글자를 첨부함으로써 전체 글이 다산이 지은 것임을 보였다. 글 끝에도 “정공이 추가로 기록하여 논하였다(丁公追記而論之).”는 말을 덧붙였다. 다산이 홍기섭의 이름으로 지은 비문은 명(銘)에서 끝이 나고, 이에 문인 17명 중에 취여 삼우가 으뜸을 차지한다는 말 또한 다산의 추가 기록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실제 다산이 쓴 『해운대사비명』은 첫줄 ‘다산옹왈’ 다음부터 銘

辭가 끝나는 데까지이다. 이 글의 첫머리는 “해운대사가 세상을 떠난 지 지금에 이미 169년이다(海運師之沒, 今已百六十九年矣).”로 시작한다. 해운은 1646년에 세상을 떴고, 여기에 169를 더하면, 이 글을 지은 것이 『만덕사지』가 완성되기 직전인 1815년임을 알 수가 있다. 실제로 홍기섭은 1815년 8월에 승지가 되었으므로 직함으로도 시기가 일치한다. 8대사라 해놓고 비문조차 없을 수 없었으므로 서둘러 비문을 지은 것이다. 다산이 짓고 홍기섭의 이름을 빌렸다.

華岳 文信(1629-1707)은 만덕사 8대사의 제4이다. 『만덕사지』에 성균관 대사성 韓致應(1760-1824)이 지은 것으로 나온다. 한치응이 성균관 대사성에 오른 시점은 1813년 12월 10일이다. 이로 보아 『화악대사비명』은 1814년과 1815년 사이에 지어졌다.

전체 원문은 다음과 같다.

祖師名文信, 號華岳, 姓金氏, 海南華山人. 出家於大菴寺落髮. 顧椎鹵不識字, 爲質田器, 且行且鬻, 以取飽. 一日憊甚, 至上院樓下, 捨擔而休焉. 時醉如三愚禪師, 集大衆, 講華嚴宗旨. 師在樓板下, 竊聽之, 立地頓悟, 悉以所負田器, 付其伴, 升樓而跪, 涕簌簌, 請受課程, 三愚大奇之, 許其所願. 是日四座灑然. 每夜拾松子爲爇, 讀書達五更. 既三年, 同列皆殿. 雲遊四方, 參伍印證. 學既成, 遂於醉如室中拈香. 於是沙彌輻輳, 菴寺講會之日, 衆至數百人. 時北方月渚禪師, 南遊至菴寺, 與論禪旨, 知其可宗, 悉以所領大衆, 讓于月渚, 學者大駭. 師喩之曰: “微爾等之所知也.” 挈以予之, 自掃一室, 杜門面壁, 俾終其會. 月渚歸語人曰: “吾至南方, 見肉身菩薩.” 云. 師生於崇禎二年己巳, 以康熙四十六年丁亥六月二十六日示寂, 壽七十九. 方示寂之時, 頭輪雷鳴. 既茶毘, 得舍利二枚. 銘曰:

有噫買鏡, 鳴彼中林. 有噫者蟬, 既蛻既唵.

黃梅依法, 春者受之. 少林有壁, 遂撤臯比.

是謂能讓, 匪伊有誼. 卑不可踰, 號爲生佛.  
 惟淨惟暄, 惟圓惟藏. 燈燈相繼, 五世其昌.  
 百歲之後, 始刻貞珉. 繫茲伽陀, 以詔後人.

『만덕사지』와 『동사열전』의 글은 서로 간에 상당한 출입이 있어, 문맥에 맞춰 교합했다. 이 글 또한 글 끝에 “비문은 한치응이 지은 것이다(碑乃韓致應所撰也).”라고 분명히 적었다. 하지만 전혀 엉뚱하게 『다산시문집』 권 17에 『華嶽禪師碑銘』이 실려 있다.

막상 이 글은 서두부터 위의 글과 전혀 다르다. 다산의 『화악선사비명』 전문은 이렇다.

沙門惠藏, 過余于寶恩山院, 爲余言其祖華嶽事, 丐余文其石. 余悲其人豪邁不遇, 是故許之. 藏之言曰: 華嶽禪師者, 塞琴縣之花山坊人也. 幼年出家, 於大芑寺落髮. 顧椎鹵不識字, 爲質鎌舌鏃鏃之屬, 行且粥以取飽. 雖捆屨者, 皆賤之. 一日憊甚, 至上院樓下, 舍擔而休焉. 時醉如三愚禪師, 集大衆講華嚴宗旨. 禪師在樓版下竊聽之, 立地頓悟, 悉以其所負田器, 付其伴而歸之, 升而跏, 涕簌簌請教, 是日四座洒然. 適大芑寺有土木之役, 禪師晝相斤壘, 暮歸拾松子燕于竈, 徹夜讀佛書. 既三年, 同列皆殿. 雲游四方, 參伍印證, 遂於醉如三愚室中拈香. 於是沙彌輻湊, 芑寺之會, 學者千有餘人. 時北方月渚禪師, 亦聞風來謁, 與論禪旨. 禪師悉以其所領大衆, 讓于月渚, 學者大驚擾亂. 禪師喻之曰: “微爾等所知也.” 挈以予之, 自掃一室, 杜門面壁. 月渚歸曰: “吾到南方, 見肉身菩薩.” 云. 晚年縱酒, 每夜沈醉, 執大杵, 繞寺行十百遍, 以杵搗階兒庭霑, 其聲亟胡嚕吟, 震動山谷. 學者悚息不敢出, 鼯而請其故, 晒而不答. 方示寂, 頭輪雷鳴, 既茶毗, 得舍利二粒. 禪師姓金氏, 法名文信, 康熙年間人. 其燈燈之緒, 上濟西山四點炷, 下至惠藏四見跋, 而禪師中焉. 銘曰:

有趙健買鎗, 酒釋其劇. 涕洟衡從, 飢不值餼.



害餉害饑，蝮蝮夜躋。碧落穹隆，槽廠闐寥。  
 醉杵盞盞，知爾者寡。褒如其聳，不若大驚。  
 萬壑生風，百年而逅，昭若發矇。

銘辭의 마지막 세 구절은 착간과 누락이 있는 듯하다. 다산의 이 글과 한치웅의 글을 비교해보면 한 사람의 같은 글임을 대변에 알 수 있다. 다산의 글은 도입단락에서 아암 혜장이 1806년 겨울, 보은산방에 머물고 있을 당시 다산에게 자신의 선대인 화악 문신의 자취를 들려주며 비문을 청한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화악 문신의 인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아암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글을 한치웅이 지은 것으로 바꾸면서 첫 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만년에 화악 문신이 밤마다 숲에 취해 절구공이를 들고 나가 밤새도록 바닥을 쿵쿵 다지며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비문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한치웅의 글로 바꾸면서 銘辭가 전면 교체되었다. 다산의 비명은 화악 문신의 일대기 요약에 중점을 둔데 반해, 고친 한치웅의 글은 화악이 5세의 의법을 이은 사실에 역점을 두어 8대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붙인 점이 차이난다.

특별히 이 글은 다산이 지은 원래 글을 한치웅의 이름으로 손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글을 수정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동사열전』에서도 이 글을 한치웅이 쓴 것으로 적었지만, 정작 다산은 고치기 이전 상태의 글을 자신의 문집에 버젓이 실음으로써, 이 글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같은 예는 여럿이 더 있다. 『만덕사지』의 편찬이 마무리되자, 고려 8국사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었고, 이에 만덕사에서는 1817년 기념 건물인 고려팔국사각을 건립하였다. 현재 이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만덕사고려팔국사각상량문」만 남아 있다. 글을 쓴 이는 철경 응언이다. 그런데 이 글 또한 사실은 다산이 짓고 이름만 빌린 글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다른 논문에 미룬다.<sup>11)</sup>

두 번째로 살핀 대체는 자신의 글인데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만든 경우다. 이름을 감추는 행위를 통해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보통은 불필요한 구설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이고, 『만덕사지』에 수록된 네 승려의 비문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책의 모양새를 좋게 하고, 권위를 끌어올리려는 또 다른 의도가 개재된 경우다. 특히 후자의 경우 다산은 글 속에 자신이 쓴 글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두어 흔적을 남겼다.

### 3. 삭제, 버려서 배제하기

삭제는 아예 문집에서 누락시켜 버림으로써 자신이 지은 글임을 감추는 경우를 말한다. 예민하거나 오해를 부를 만한 문제거나, 이단에 대한 과도한 추중 또는 비판을 담은 글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승려들에게 준 글에서 다산은 적극적으로 불교적 논리를 빌어 와 가르침을 주곤 했다. 승려들에게 내린 수많은 贈言帖 속의 글들은 초의와 근은에게 준 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삭제되었다.

처음에 살펴볼 글은 「懸海法師塔銘」이다. 이 글은 최근 필자가 발굴한 제 3 『見月帖』 속에 들어있다.<sup>12)</sup> 현해 모운은 『동사열전』 「懸解禪師傅」이 남아있다. 「현해법사탑명」은 대흥사 부도전에 비석이 서 있다. 그런데 『견월첩』에 수록된 다산의 글보다 훨씬 짧고, 뒷부분은 내용이 교체되어 있으며, 지은이도 다산이 아닌 아암 혜장으로 되어 있다. 먼저 글을 읽고 나서 비석에 적힌 글과 비교해 보겠다.

11) 정민(2017a), 117~152면 참조.

12) 정민(2017c)에서 상세하게 논하였다.

살아서는 그 작위가 嘉善大夫였고, 죽어서 그 호를 懸解라 한 사람은 두륜산 승려 慕潤이다. 모운이 비록 승려이긴 했지만, 이익을 좇음은 맹수 같았고 고기를 즐기는 날센 매와 같아, 쌓아둔 재물이 여러 고을에 으뜸이었다. 죽음에 미쳐서 사리 1과가 불속에서 튀어 올랐다. 이를 살펴보니 꽃모양의 광채가 찬연하였으므로 보던 이가 모두 놀랐다. 그 행적을 살펴보니 다만 그 종족과 형제로 그의 도움을 기다려 불을 때서 밥을 지어먹은 자가 십 여 집이요, 손님으로 재워주고 먹여준 사람이 한 해에 천 명을 헤아렸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주문을 외우며, 불상을 그리고 불경을 새기는 공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의 무리에 술을 잘 마시고 시를 잘 짓는 자가 있으니 曠性이라고 한다. 내게 그 답에 銘을 청하므로, 내가 그 행적을 묻고서 이를 허락하였다. 명에 말한다.<sup>13)</sup>

泥洹의 醯蘭 위 북쪽에 머리 두니	北首泥洹醯蘭上
황금의 무게가 八斛하고 四斗일세.	八斛四斗金斗量
鄴道元의 黃河 풀이 그 말이 맹랑하여	鄴注黃河語孟浪
표범 이빨 영양의 뿔 맞겨루기 어렵구나.	豸齒羚羊難相亢
바람 맞아 바수어서 재 되어 날리우니	當風粉碎灰飛颺
기름진 고기와 새, 하늘에서 양식 쓰리.	脂膏鱗羽天用餉
慕潤은 잘 받아 슬퍼하지 말지니	潤也順受勿悽愴
부엌어미 굵고 담가 짓갈과 함께 내리.	熬母炮漬雜齏醬
사리가 나왔기에 여기에 장사하니	厥有超骨于斯葬
가을 물처럼 밝고 금강인양 단단하다.	瑩如秋水堅如鋼
자취로 道 증명해 중생이 향해가나	以跡證道衆傾嚮
자취 행실 어긋남을 무리가 슬퍼한다.	蹟與行違羣悵恨

13) 『견월첩』: “生而嘉善其爵, 死而懸解其號者, 頭輪山僧慕潤也. 慕潤雖薙染乎, 趨利如猛獸, 嗜肉如豪鷹, 積著雄數郡. 及其死也, 有舍利一顆躍于火, 眦之莖光粲然, 觀者僉愕. 考其行, 唯其宗族兄弟, 待以舉火者, 十有餘家, 賓旅館穀者, 歲以千數. 而守律念呪, 繪像雕經之功, 蓋蔑如也. 其徒有善飲能詩者, 曰曠性, 乞余銘其塔, 余問其行而許之. 銘曰:”

두 망령됨 서로 싸워 또 한 번 망령되니  
그 누가 현해더러 無盡藏이라 했다.

二妄胥鬪又一妄  
孰號懸解無盡藏

승려의 탐명 치고는 뜻밖의 내용이다. 한 마디로 그는 전혀 승려답지 않은 승려였다. 이익을 얻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고기도 거리낌 없이 잘 먹었다. 인근 여러 고을에서 그를 능가할 부자가 없었다. 그는 속물적 욕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승려였다. 그런데 막상 죽어 다비를 하자 영롱한 사리 1과가 나와 모든 이를 경악케 했다.<sup>14)</sup>

그의 일생 행적은 어땠던가? 그 일가붙이 십여 집이 그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았다. 씹씹이도 넉넉한데다 품도 넓어 1년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객이 1천명이 넘었다. 하지만 승려로써 계율을 지키거나 염불을 외는 정성, 불상을 그리거나 불경을 인쇄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육신에서 밝고 찬란한 사리가 나왔다. 이 모순을 어찌할 것인가?

그는 죽어 사리를 남김으로써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를 남겼다. 다산의 「현해법사탐명」은 병서부터 탐명까지 까칠하기 짝이 없다. 탐명은 망자의 공덕을 기리자고 세우는 것인데, 다산은 모운에 대해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대둔사 부도밭에 서있는 실제 「懸解塔」에 새겨진 탐명은 이렇다.

살아서는 그 작위가 嘉善大夫였고, 죽어서 그 호를 懸解라 한 사람은 두룬산 승려 慕潤이다. 살아서는 고기를 뜯어 살이 쪼고, 죽어서는 사리가 나왔다. 살아서는 쌓아둔 재물이 많았고, 죽어서는 맑은 이름을 얻었다. 논하는 자가 기이하게 여긴다. 銘에 말한다.<sup>15)</sup>

14) 범해 각안, 「현해선사전(懸解禪師傳)」(『동사열전』 권4): “師名慕潤, 號懸解, 姓李氏, 海南溫水洞人. 出家於頭輪山, 受戒於靈谷禪師. 出入世諦, 外財饒足, 贈嘉善大夫. 行住持, 年至稀歲, 奄然順世. 荼毘之日, 得超骨, 是實異矣.”

사리를 얻고 나서	骨既超
답이 여기 우뚝 섰네.	塔斯屹
자취가 그러하니	跡則然
이치 묻긴 어렵다네.	理難詰

병서의 처음 한 줄은 다산의 글과 꼭 같다. 뒷부분의 취지도 비슷하지만 많이 완화시켜 넘어갔다. 명은 3자 4구로 말을 극도로 아꼈다. 사리가 나온 자취를 부정할 수가 없는지라 이 상황에 대해 쉽게 왈가왈부하기가 어렵다고 썼다. 다시 말해 모운의 행실은 불교 교리에서 크게 어긋났지만, 사리의 증거 자체는 그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취지는 다산의 처음 글과 비슷하나, 이 글만 읽은 사람은 글 쓴 이의 의도를 기늠하기가 쉽지 않다.

비석에는 ‘兒菴惠藏撰’이라 하여 지은 이를 아암 혜장으로 명시했다. 이른 바 대체에 해당한다. 『동사열전』 『懸解禪師傅』에는 “다산 정선생에게 답명을 청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請茶山丁先生塔銘, 銘曰)”이라 한 뒤 비문에 새겨진 것과 똑 같은 글을 적어놓았다. 그러니 이 또한 다산이 지은 글이 분명하다. 또 글 끝에는 “그 법을 받은 자인 花城 聞庵이 畫像을 걸어 제사를 받드는데, 정선생이 화상찬도 지었다(受其法者, 花城聞庵, 設像奉奠, 丁先生亦撰像贊).”고 했다. 다산이 현해 모운을 위해 별도의 『畫像贊』까지 지어 주었다는 것이다.

짐작은 이렇다. 다산이 처음 지은 『현해법사탑명』이 『건월첩』에 실린 채 절에 도착하자, 이 글을 두고 이견이 분분했다. 망자에게 모욕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글을 이대로는 실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글을 아예 짧게 고쳐 줄 것을 요청해, 앞뒤 정황 없이 읽으면 칭찬인지 욕인지도 알 수 없도록

15) 『건월첩』: “生而嘉善其爵, 死而懸解其號者, 頭崙山僧慕閔也. 生而齧肥, 死而超骨. 生而高貴, 死而清名, 論者奇之. 銘曰:”

문맥을 모호하게 수정하고, 지은이의 이름도 아암 혜장으로 바뀌어서 겨우 비석을 세웠다.

그런데 『건월첩』에 실린 「현해법사탑명」 끝에는 다시 다산이 친필로 부기한 두 편의 짧은 글이 실려 있다.

예전 내 두 아들이 대둔사에 놀러갔을 때 여러 승려 중 보살펴준 사람은 모운 뿐이었다. 어여빠 보아 머물게 하며 아우처럼 대해주어, 두 아들이 덕을 입었다. 내가 이 銘을 짓는 것은 두 아들에게 베푼 호의를 갚으려 함이다. 또 이로써 그 속임수를 물리치고 누란내와 비란내를 드러냈으나 내가 그를 비루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다산옹은 쓴다.<sup>16)</sup>

다산의 뜻은 이렇다. 예전 두 아들이 앞뒤로 대둔사에 갔을 때 두 아들을 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잠까지 재워 준 것은 모운 뿐이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짓는 것은 두 아들이 그에게 입었던 신세를 잊지 않고 그 호의를 대신 갚으려는 것이다. 그의 행적은 엄밀하게 말해 속임수에 가깝고, 그는 승려답지 않게 속물로 살았다. 그 점을 글에서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비루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알아주기 바란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대로 적고, 그와 나 사이에 얽힌 개인적인 인연을 탑명 뒤에 이렇게 부기했다. 이로써 내가 그를 나쁘게 보면서 악의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는 뜻이다.

다산이 「현해법사탑명」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이 모운이 걸 다르고 속 다른 엉터리 중이라는 비난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는 돈에 욕심 많고 고기도 즐겨 먹었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겉으로 드러난 행적만 보면 그는 파계승에 가까웠으나, 내면을 살핀다면 그야말로 진

16) 『건월첩』: “昔余二子游大菴寺，諸僧爲見也者，唯潤老。憐而館之，待之季氏，二子賴焉。余爲此銘，爲二子塞也。且以闢其罔，以見菴腥，非吾人之所鄙也。茶山翁書。”

정한 불성을 지닌 승려였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이 글에 담긴 다산의 진정한 속내는 아니었을까 싶다. 모운은 함부로 비난할 수도 그렇다고 덮어 놓고 옹호하기도 힘든 애매한 지점에 놓인 인물이었다. 모든 사람이 속물로 보던 그에게서 영롱한 사리가 나온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다산은 이 어려운 문제를 빗겨가지 않고 정공법으로 정면돌파 했는데, 이 글의 진의를 제대로 읽지 못해 대둔사 내부에서 이런저런 소동이 일자 다산은 한 번 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를 느껴 위 글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다산은 현해 모운을 위해 직접 지은 비문과 탐명 및 後跋을 문집에서 완전히 누락시켰다. 장난으로 쓴 글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 대둔사 쪽의 걸끄러운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국 이를 반영해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일부만 따서 아암 혜장의 이름으로 대체케 한 후, 원래 글은 폐기했다.

「高聲菴募緣文」은 강진 읍내의 뒷산인 牛頭峰에 자리한 백련사에 속한 암자 고성암의 중수를 위해 모금을 할 때 다산이 지은 募緣文, 즉 모금을 청한 글이다. 다산은 1805년 겨울 아암 혜장의 주선으로 이곳 고성암의 寶恩山房에서 아들 학연과 함께 겨울을 났다. 문집에 없고, 『백열록』에만 실려 있다.

伏以民之所重者邑, 邑之所依者山. 萬落千村, 仰金城而爲極, 重樓疊閣, 跨碧崖而成基. 然則保民者, 必顧其邑, 顧邑者, 必勝其山. 此自然之勢也. 唯茲菴, 實據牛頭, 在本邑, 素稱龍脉, 雙峯如角, 神僧指齧舛之形, 九浦當頭, 道士傳飲泉之訣. 蒲牢夕吼, 警春睡而催耕, 木鯉晨鳴, 滌秋場而收獲. 地靈人傑, 咸被陰功, 野稼山農, 率由宜佑. 不幸樑摧而棟折, 嗟乎潤愧而林慚. 檀鉢宵奔, 石廠能師之杵. 桐徽暮絕, 金沙毀聰老之琴. 飛蝙蝠而黃昏, 舊僧流涕, 騰麴麴於白日, 過客齋咨. 貧道等粥飯殘生, 糝糠賤品. 竊慕禽味之填海, 志雖切於圖功,

殆同蚊背之負山. 力奈綿於興役, 伏願十八坊諸君子, 既諸島僉尊位, 深念邑基之重, 快捐塵刹之輕. 大發仁心, 洪施巨貨, 則碧瓦朱櫺, 煥伽藍而生色. 金穰玉粒, 峙窖粟而呈祥, 豈唯一寺之僧, 叨沾大惠, 抑亦萬家之邑, 永奠名基. 凡在瞻聆, 莫不欣聳, 得遂大願, 不勝幸甚.

변려문으로 文飾性이 뛰어나다. 고성암이 강진읍을 지켜주는 진산임을 들어서 이곳의 지형과 풍수적 위치를 설명한 후, 모금을 통해 훌륭한 건물을 지어 이름난 터전을 세우자고 촉구한 내용이다.

문집에 빠진 글 중 다산의 『禪問答』도 흥미롭다. 『백열록』에 남아있다.

만순은 모름지기 塵勞에 灑脫하고, 의순은 實地를 실천하도록 해라. 법훈은 모름지기 깨달음의 관문에 투철해야 한다.

만순이 묻는다. “어찌해야 세상일에 쇄탈합니까?”

師는 말한다. “가을 구름 사이의 한 조각 달빛.”

의순이 묻는다. “어찌해야 실지를 실천합니까?”

師가 말한다. “날리는 꽃 帝城에 가득하도다.”

법훈이 묻는다. “어찌해야 깨달음의 관문을 투득합니까?”

師가 말한다. “새 그림자 찬 방죽을 건너가누나.”<sup>17)</sup>

만순과 초의, 법훈 등 세 승려와 주고 받은 신문답이다. 다산은 세 승려에게 각각 ‘灑脫塵勞’와 ‘踐蹋實地’, ‘超透悟關’을 주문했다. 각자의 개성에 맞춰 警策이 될 만한 가르침을 내린 것이다. 만순에게 내린 ‘쇄탈진로’는 塵勞, 즉 티끌세상에서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번뇌를 쇄탈, 곧 시원스럽게 벗어던지라는 말이다. 초의에게 준 ‘천답실지’는 관념의 허위에 매몰되지

17) “淳也須灑脫塵勞, 詢也須踐蹋實地, 訓也須超透悟關. 淳問: “如何是灑脫塵勞?” 師曰: “秋雲一片月.” 詢問: “如何是踐蹋實地?” 師曰: “飛花滿帝城.” 訓問: “如何是超透悟關.” 師曰: “鳥影渡寒塘.”



말고 실천에 옮기기에 힘쓰라는 주문이다. 범훈에게 건넨 ‘초투오관’은 지부진한 일상을 차고 나와 깨달음의 관문을 透得하라는 뜻이다.

이에 세 승려가 차례로 구체적인 방법을 질문하고, 다산은 설명 대신 시한 구절로 대답해 선문답을 완성했다. 한 예로 만순이 ‘쇄탈진로’의 방법을 묻자, 다산은 불쑥 “가을 구름 사이의 한 조각 달빛(秋雲一片月)”의 시구를 내민다. “서늘한 가을밤, 구름 사이로 조각달이 빼꼼 얼굴을 내민다. 자! 구름에 가려 환한 달을 못 보는 삶이지만, 때로 바람이 구름을 걷어내면 흰 달이 얼굴을 내밀지 않느냐? 만순, 너는 그 달빛이 되거라.” 聲東擊西격의 이와 같은 방식이다. 문답 속에서 다산은 어느새 산사의 방장 스님의 풍모를 띤다.

이밖에도 초의와 한산의 시를 두고 주고받은 별도의 선문답이 여러 편 전한다. 또한 승려들에게 건넨 수많은 증언첩의 가르침 속에도 불교의 비유를 끌어온 놀랍고 흥미로운 글들이 많다. 모두 삭제되고 없다. 철경 응언에게 준 『제철경첩』에 실린 한 단락이다.

騎魚子が 초겨울에 먼 길을 떠나는데 갑자기 숨을 든 衲衣를 입었다.

다산이 말한다.

“내가 가난한데 어디서 이 같은 옷을 얻었느냐?”

기어가 말한다.

“도회 비구가 제게 주었습니다.”

다산이 말한다.

“남은 춥게 하고 나만 따뜻해도 되는가?”

기어가 말한다.

“만물은 한 몸이고 나와 타인은 평등합지요.”<sup>18)</sup>

18) 騎魚子初寒遠遊，忽着有絮之衲。茶山曰：“爾貧何從得有此衣?” 魚曰：“道爐比丘贈我。” 茶山曰：“寒佗煖自，可乎?” 魚曰：“萬物一體，自他平等。”

사제간의 말장난을 선문답 풍으로 옮겨 적었다. “가난한 녀석이 어디서 이런 좋은 옷이 났느냐?” “도환 비구가 주었습니다.” 다산은 장난기가 동했다. “그래, 너 따뜻하자고 남의 옷을 뺏어 입는 것이 옳은 일이나?” 자홍이 받는다. “선생님! 만물이 일체요, 자타가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르십니까그려. 이게 바로 보살행인 게지요.” “요놈! 내 꿀밤을 한방 먹어라.” 사제는 깔깔대며 웃는다.

글에 등장하는 도환 비구는 꽤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에 대해 쓴 다산의 다른 글 한편이 기어 자굉에게 준 증언첩 속에 한번 더 나온다.

道桓 비구가 성품이 명민하고 재빨랐다. 자하산인이 말했다. “지혜란 우둔함의 뿌리이고, 교묘한 것은 졸렬한 것의 바탕이다. 네가 이를 아느냐? 神秀 스님은 똑똑했고 부업데기 慧能은 무식했지만 혜능이 먼저 의발을 받았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 우둔하고 졸렬한 것이야말로 덕을 이루는 바탕이니라.”<sup>19)</sup>

뜻은 이렇다. “도환아! 내가 보기에 너는 너무 재빠르고 똑똑하다. 하지만 큰 공부는 지혜로 하지 않고 우둔과 졸렬로 하는 것이니라. 약삭빠르고 재빠르게 해선 안 되고, 단순하고 무식하게 해야 한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똑똑한 신수가 글도 모르는 혜능에게 무릎을 꿇었다. 의심 없이 정진해라. 따지지 말고 나아가라.”

이런 주옥같은 글들이 모두 강렬한 불교적 색채로 인해 검열의 체에 걸려져 문집에서 삭제되었다. 다산이 승려들에게 준 이같은 증언만 해도 100칙이 넘는다.<sup>20)</sup>

19) 道桓比丘性機警。紫霞山人曰：“慧者鈍之根，巧者拙之本。女知之乎？神秀穎悟，而槽廠笨夫，先獲衣鉢，女知之乎？鈍拙者，成德之基。”

20) 다산이 승려 제자들에게 준 20종에 가까운 증언첩은 정민(2017e)에 사진과 함께 전문이 번역 수록되어 있다.

#### IV. 맺음말

이 글은 검열의 기제를 다산의 불교문자를 통해 살폈다. 주로 사회와 국가의 통념에 반하는 불교문자의 경우 자기 검열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주목했다. 사학 죄인으로 몰려 유자의 신분으로 강진에 유배되었던 다산이 다시 이단인 불교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구설을 막기 위해, 다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불교문자를 자기 검열했다.

다산의 불교문자는 자기 검열의 체에 걸려져 일부 내용이 침삭되어 교체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체되었으며, 불교적 색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경우는 아예 탈락되어 지워졌다. 하지만 이들 글은 절집에서는 보배롭게 간직되어 다산의 친필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왔거나, 아껴가며 전사되어 돌려 읽는 소중한 대접을 받았다.

현재까지 살아남은 다산의 실로 풍부한 불교문자들은 검열을 견뎌 남은 나머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꾸로 당시 사회가 다산에게 강요했던 검열의 실상과 작동의 원리를 엿볼 수 있다. 말하기의 욕망을 견디면서 문제를 차단키 위한 방편으로 다산은 다양한 형태의 은폐와 우회적 자기 검열 기제를 작동시켰다. 고치고 지우고 잘라낸 단층에서 불교에 대한 다산의 높고 깊은 식견과 사유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불교문자 외에도 적잖은 글들이 다산의 문집에서 사라졌다. 이들 글에 적용된 자기 검열의 원리도 후속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싶다.

## 참고문헌

### 1. 원전

『見月帖』 필사본, 趙南鶴 所藏.

『大菴寺志』.

『萬德寺志』.

梵海 覺岸, 『東師列傳』.

丁若鏞, 『茶山詩文集』.

惠藏, 『兒菴遺集』.

惠藏, 『蓮坡剩藁』.

### 2. 논문 및 단행본

정민(2008a), 「다산과 은봉의 교유와 <만일암지>」, 『문헌과해석』 가을호(통권 44호), 11~27면.

\_\_\_\_\_(2008b), 「다산의 선문답」, 『문헌과해석』 겨울호(통권 45호), 13~31면.

\_\_\_\_\_(2008c), 「다산과 혜장의 교유와 두 개의 『견월첩』」, 『한국학논집』 제43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29~156면.

\_\_\_\_\_(2009), 「다산과 이인행의 남북학술 논쟁」, 『다산학』 15호, 41~80면.

\_\_\_\_\_(2010),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_\_\_\_\_(2012), 「茶山 佚文을 통해본 승려와의 교유와 강학」, 『한국한문학회연구』 제50집, 한국한문학회, 101~127면.

\_\_\_\_\_(2016), 「다산 불교관련 일문 자료의 종합적 정리」, 『세계사 속의 다산학』[AKSR 2016-J08],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자료의 현대화연구과제 보고서, 152~231면.

\_\_\_\_\_(2017a), 「<萬德寺高麗八國師閣上梁文>攷」, 『불교학보』 제78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7, 117~152면.

\_\_\_\_\_(2017b), 「『萬德寺志』의 편찬 경과」, 『불교학보』 제79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07~131면.

\_\_\_\_\_(2017c), 「새로 찾은 다산의 제3 『見月帖』에 대하여」, 『불교학보』 제80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65~191면.

\_\_\_\_\_(2017d), 「茶山 備禦考의 행방」,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 100호 출간 기념학술회의 자료집, 17~50면.

\_\_\_\_\_(2017e), 『다산 증언첩』, 휴머니스트.

정민(2017f), 『다산의 제자 교육법』, 휴머니스트.

허선도(1974), 『制勝方略 연구』(하), 『진단학보』 제37호, 5~42면.

K C I

〈Abstract〉

The Self-censorship of Jung Yak-yong's Buddhist writings

Jung, Min\*

Chung Yak-yong (1762-1836) lived in Kangjin area for 18 years as a exiles. He left many Buddhist related texts during the period. Of these, less than a quarter of the total was included in the collection. This shows that a kind of self-censorship was done.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several aspects of such self-censorship.

Generally speaking, self-censorship is a kind of disguise and concealment behaviors done to avoid social disadvantage, sanctions, or accusations. That aspect is the act of eliminating or correcting sentences with concerns of problems. In this article, I looked at the patterns of self-censorship of Buddhist related texts over three layers of correction, substitution, and dropout. Correction is expressed in a way of telling and concealing, and the substitution shows the desire to be revealed by hiding. And Dropout is an attitude to create that it did not act itself by eliminating completely.

He could not help but be conscious of the disadvantages that his writings, which had been friendly to the Buddhism that belonged to the exclusionary value domain at that time, could bring. So he removed his writings about Buddhism from his collection. In addition, even if it is inevitable, the problematic parts are corrected. And He also borrowed the name of someone else to hide the fact that he wrote it himself. What can not be overlooked here is how self-censorship works on Buddhist texts.

In terms of self-censorship, it is possible to compare the manuscripts before censorship and after censorship together. However, it is not uncommon to see that both remain. It is because the Buddhist temples and monks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 E-mail : jung0739@hanmail.net

kept them carefully, even though he excluded the texts he wrote about Buddhism. It is possible to look around Chung Yak-yong's self-censored face. I have excavated and organized a very large amount of Buddhism-related texts which is missing in the collection through extensive data collection work, so I was able to proceed with such work. Chung Yak-yong then wrote at the request of the then time. Then,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that may arise later, various types of concealment and detouring censorship mechanisms were activated. In this paper, we give a concrete example of each case and examined its meaning.

He had a deep understanding and a critical awareness of Buddhism, but the voice of criticism does not appear conspicuously in his first writings. He intentionally added critical comments to some of the articles in the collection. And sometimes he used to be a writer, not a self, according to his strategic judgment. In addition, many of the writings he wrote were misinterpreted as self-censored as he thought it was a joke.

There are many other articles written by Jung, Yak-Yong missing in the collection. There is a need to continually review the principles of self-censorship in his writings, including these articles.

Key words : Jung Yak-yong, self-censorship, Buddhism, correction, substitution, dropout, censorship mechanism.

본 논문은 2017년 11월 11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11일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11일 게재를 확정하였음.
--